

11월18일 월요일

빌립보서 1장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여행 중이던 주후 51년경,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2장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본장에서 바울사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5절), 자기 유익을 구하기 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라고 권면합니다(3-4절). 본 장에 이런 삶을 사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 1) \_\_\_\_\_ :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
  - 2) \_\_\_\_\_ :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긴 사람
-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복되고 은혜가 충만할까요? 내가 먼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3장 꾀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본장 15절에서 바울사도는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 ). 꾀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 )."

4장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사도는 서신의 말미에서 한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 두 여인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사도는 두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어떤 말씀으로 부탁하나요?

\*교회 안에서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함께 연합하고 하나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19일 화요일

골로새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제자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골로새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도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도의 사역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그를 ( )하여 각 사람을 ( ),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 )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장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본장에서 바울사도는 성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8절), 율법주의(16절), 신비주의(18절) 등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대로, ( )에 굳게 서서 ( )을 넘치게 하라."

3장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1-2장에서 교리를 다룬 사도는, 3-4장에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벗어 버릴 것들과 입어야 할 옷들이 있습니다.

- 1) 벗어버릴 것(8절):
- 2) 입어야 할 것(12절):

4장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다수 성도들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서신을 마치면서 에바브라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그곳 사람들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문안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저희에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라이프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20일 수요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약 한 달간(세 안식일)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행 17:1-15).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던 바울사도는 디모데를 통해(3:6)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 이 세가지 성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2-3절)

2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본장에서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13절)

\*말씀을 들을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3장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데살로니가를 갑자기 떠난 바울사도의 심정은 돌볼 사람 없는 어린 자녀들을 떠나버린 부모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초신자에게 불과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바울사도는 누구를 보내어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위로해주었나요? (2, 6절)

4장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본장에서 바울사도는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하는 교인들을 위로합니다(13-18).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 재림 전에 죽으면,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여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 )"고 위로합니다.

5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본장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써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월21일 목요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장소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 )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 )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2장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위험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기도 하고(4절),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속일 것(9-1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 )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 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 )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마지막 권면에서 바울사도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다루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전 4:11; 5:14).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사는 게으른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 1) 데살로니가전서 4:11-
- 2) 데살로니가전서 5:14-
- 3) 데살로니가후서 3:10-

11월22일 금요일

디모데전서 1장 하나님을 경륜을 이름 VS 변론을 내는 것 본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오래도록 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목회를 할 때, 이 서신을 받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신앙생활에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토론, 말장난(헛된 말)에 빠지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2장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본장에서 사도가 주는 구체적인 목회적인 권면은 기도 에 관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나요?

- 1) 1절:
- 2) 2절:

3장 감독과 집사의 직분

본장에서 사도는 교회의 감독과 집사 직분의 원리와 자격 기준을 말합니다. 감독은 장로, 목사와 동일한 직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장에서 사도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곧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나요? (1절)

4장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바울사도는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자 상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을 합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 )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 )과 ( )과 ( )에 전념하라."

11월23일 토요일

5장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본장은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 과부들을 돌보는 원리, 그리고 장로들에 대한 문제를 교훈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비난을 받을 경우를 다룹니다.(17-25절) 그것이 공식적인 비난이거나 송사의 경우일 때, 두 세 증인이 없으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연히 받을 수 있는 비난과 혐의를 의식한 권면입니다. 그러나 만일 송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지도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장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음 설명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만 악의 뿌리가 됨
- 이것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게 됨
-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됨

디모데후서 1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에는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이제는 늙은 사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는 오랜 세월, 복음을 위해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이 한 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다가, 후에는 복음을 배신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거짓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장에 나타난 복음을 배신한 사람과,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 온 사람의 이름을 각각 써 보세요.(15-18절)

2장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 위해서 디모데가 세 가지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3-6절)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병사로, 받을 상을 바라보며 경기하는 자로,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농부로서 주를 섬기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